

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에 총력... 전국 집중 단속 돌입

- 무인기(드론)·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 투입, 상황실 운영으로 신속 대응
- 누구나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☎128로 즉시 신고 가능

기후에너지환경부(장관 김성환)는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특별 감시·단속 및 홍보·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이번 특별 감시·단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7개 유역(지방)환경청*, 전국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와 단속을 추진한다.

* 한강유역환경청, 낙동강유역환경청, 금강유역환경청, 영산강유역환경청, 원주지방환경청, 대구지방환경청, 전북지방환경청

연휴 전에는 사전 홍보 및 계도와 함께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병행하며,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3만 1천여 곳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한다.

또한, 환경오염 취약지역 내 3,400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감시·단속을 실시 한다. 특히 △공공수역 직접 방류 사업장 및 상수원 인근 사업장, △대기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, △민원 다발 또는 환경법 반복 위반 사업장, △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.

연휴기간에는 무인기(드론)와 이동측정차량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투입해 현장 감시를 강화하며, 불법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즉시 추가 단속한다.

추석 연휴 중에는 지역별 상황실과 ‘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’(☎128)를 운영하며, 국민 누구나 국번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, 위험 취약 지역 및 하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사고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.

연휴 이후인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.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과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.

한편,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2,3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·단속을 실시했으며, 103개(4.4%)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.

주요 위반사례는 △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, △배출 허용기준 초과, △방지시설 기구류 고장·훼손 방치, △환경기술인 및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이러한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.

진명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은 “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환경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, 발생 즉시 신속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- 붙임 1.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·단속 개요
2. 환경오염행위 신고 전화(128번) 홍보배너. 끝.

담당 부서	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	책임자	과 장	원지영 (044-201-6160)
		담당자	사무관	서종렬 (044-201-6161)

□ 배 경

- “추석” 연휴기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 소홀로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

□ 추진계획

- 기간 : '26. 9. 18 ~ 10. 8(21일간)
- 중점 감시·순찰대상 지역 및 시설
 - 상수원 수계, 산업·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
 - 오염우심지역(산단 등) 폐수 및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
 - ※ 악성폐수(염색·피혁·도금 등) 배출업체, 폐수다량 배출업체, 폐수수탁처리업체, 시멘트 제조업체, 화력발전소 등
 - 하수·분뇨·축산·폐수처리시설, 폐기물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

□ 단계별 추진일정

- 연휴 전(9.18~9.23.)
 - 중점 감시 대상지역(시설)에 대한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 유도
 - 환경오염 취약업소·지역 중심 감시·순찰 강화 및 특별단속
 - 간부 공무원(과장급 이상)의 주요시설 현지점검
- 연휴 중(9.24~9.27.)
 - 산업단지 배출업소 및 주변 하천 등 오염우심 지역에 대한 순찰강화
 -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 설치·운영
 - 환경오염 신고·상담 창구(☎128) 운영
- 연휴 후(9.28~10.8.)
 - 환경관리 취약·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장기간 가동중단 후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

환경신문고

환경오염을
발견하면
국번없이

128

이리빨리 신고해주시면
우리 환경이 건강해집니다.



환경신문고 128 CHECK!

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누구나 즉시 신고
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번호가 바로 '환경신문고' 입니다.

신고대상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·훼손 행위



대기

쓰레기 불법소각,
공장 및 자동차 매연
과다배출, 공사장
비산먼지 발생 등



물

폐수 무단 방류,
수질오염사고(유류, 폐용제 등),
폐수 비밀 배출구 설치,
하천에서의 불법 세차 등



폐기물

생활폐기물 및
건설폐기물 불법 투기,
폐기물 불법 매립 등



유독물

유독물 유출 사고,
유독물 불법 방치 등

신고방법 [국번없이] 128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(앱)으로 신고 가능

누가, 언제, 어디서, 어떻게 환경오염 행위를 했는지 6하원칙에 따라 신고

* 신고인의 신원은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